

2018년 9월 23일 “복음의 여정(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2:10-13; 3:1)

<도입>

복음(진리의 기쁜 소식)은 인간의 발달된 이성 또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계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창출될 수 없으므로 복음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는 참된 것을 향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 때 믿음의 생기고 계속 복음을 들으면 존귀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변화/성숙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성도는 이 여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1] 한 원로 목사님의 자성

교계 원로 홍정길 목사님은 40년 목회생활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 목회시절에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이 몰려올 때라 지식/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 대형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았는데, 결과는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제자훈련, 선교를 열심히 했고, 세운 목표도 달성했는데(천만 성도 등) 결국 속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만 남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 대로 살려는 세대가 등장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 외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이다.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자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걸로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이기적 기독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에 문제들이 터지니까 많은 비판의 소리(제도 부패, 목회자 탐욕, 개인주의, 편의주의 등)를 내지만 나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목사님 지적대로 예수님께 얻은 생명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 즉 복음의 여정을 충실하게 걷는 것은 분명한 살 길입니다.

[2] 한번 듣고 말 복음이 아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번 듣고 믿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평생 복음이 가까이 들려지도록 삶의 스타일을 결단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세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분 사랑에 크게 감동할 때가 있다.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안 것이 아니고, 그분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살아가면서 정죄받지 않음이 큰 축복임을 선명하게 깨닫는 때가 있다.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정죄 받지 않는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정죄 없는 복음의 삶을 걷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살아가면서 십자가 죽음을 선명하게 알 때가 있다.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그 죽음을 믿었으니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말했다.”

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람과 세상의 의미를 깨닫고 감동받으면 그 자체로 완벽한 무엇이 아니고, 우리 삶에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의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여 걸을 때,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한 믿음의 끌림으로 이 길에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의 여정의 마지막이 영광이라고 약속합니다.

10절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여정 속에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사랑과 인내의 길, 자기 죄와 싸우는 길, 존재가 행위보다 더 가치 있음을 믿는 길,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 등입니다.

[3]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길은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2:18-3:1 참고)

‘생각하라’는 말은 파악하라는 뜻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형제가 되어 주심으로 함께 걸어가십니다.

11 절.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12 절 “내 형제들에게 선포”, 13 절 “불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축복을 나누시는 예수님 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맺음>

복음의 여정을 잘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멈추든지, 빗나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가지 언급한다면, ‘예수님을 오해/모름’ ‘죄에 대한 의식 결여’, ‘자기 의’, ‘정죄감과 수치심’ ‘세상 가치관’, ‘완벽주의’ 등 이 장애물들은 참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여정은 동기도 사랑, 목적도 사랑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참고: 아래 질문을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은 ‘과정’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 옛 과정과는 다른 새로운 과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참고하며 말씀해 봅시다. 평생 복음이 가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행 중이신가요?

2. 성도의 복음적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홍정길 목사님의 인터뷰를 요약한 설교 첫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3. 내가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봅시다.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나누어 보세요.